

## CJ제일제당, DJSI 亞·泰지수 5년 연속 등재

국내 식품업계 최초 성과

CJ제일제당은 세계적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국내 식품업계에선 처음으로 5년 연속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수에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S&P Dow Jones Indices)와 지속가능성 평가 전문기관 스위스 로베코샘(Robeco SAM)이 공동

개발한 글로벌 기업 평가 기준이다. 경제와 환경,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12개 기업 중 상위 20%에 포함되며 아-태 지수에 등재됐다. 올해 평가에서 국내 식품업체들 가운데 아-태 지수에 이름을 올린 것은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롤로 할로윈 파티 오픈

롯데월드 언더씨킹덤은 10월 27일까지 가을 시즌 축제 '롤로 할로윈 파티'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언더씨킹덤에 갑자기 나타난 해적 갤리온과 유령들로부터 바다 왕국의 공주 비비와 수호자 카이가 롯데월드 언더씨킹덤을 구한다는 스토리를 담아 각종 미션 프로그램과 특별 퍼포먼스를 운영한다.

/롯데월드



### 동아쏘시오홀딩스, 北결핵치료제 지원 앞장

한 가운데 남북 상호교류 증진과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남북간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윤승길 공동대표/사무총장,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 광복회 김원웅 회장,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재희 회장 직무대행.

/동아쏘시오홀딩스

### KAIST 이조원 신임 나노종합기술원장 취임

KAIST는 제6대 나노종합기술원장에 선임된 이조원 석좌교수(사진)가 16일 취임한다. 원장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 15일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금속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과학기술부 21세기프런티어사업단 테라급나



노소자개발사업단장과 한양대 나노융합과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에도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hys@



### 건국대, 스포츠과학 융합연구 선도 'KUMEC' 개소

전을 위해 각종 신체측정과 운동연구 장비로 구성된 건국대 'KU 메타볼릭 환경제어 연구센터(KUMEC)'가 지난 11일 건국대 공학관 104호에서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건국대 PAI 연구소 산하에 설립된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포츠과학화 융합연구사업'에 선정돼 총 예산 30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됐다.

/건국대

스포츠선수들의 운동능력 향상과 스포츠의학 분야 발

전을 위해 각종 신체측정과 운동연구 장비로 구성된 건국대 'KU 메타볼릭 환경제어 연구센터(KUMEC)'가 지난 11일 건국대 공학관 104호에서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건국대 PAI 연구소 산하에 설립된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포츠과학화 융합연구사업'에 선정돼 총 예산 30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됐다.

/건국대

##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김 보 라 변호사의

### 노동법률 읽기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 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입장에서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위 제3자, 즉 사용사업주는 파견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법원이 파견근로관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 도로공사가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업무매뉴얼에 수납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정하고 있는 점, 도로공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납원들

이 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 외주사업체가 수납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 점, ▲ 수납원들의 과업내용에 '기타 도로공사가 지시한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용역계약의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외주사업체가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고 별다른 자본 투자나 사업경영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및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사이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원이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수납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외주사업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를 당했더라도 사용사업주는 여전히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즉, 외주사업체의 근로자가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바른

## 현대차,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 재무정보·환경경영 등 종합 평가 글로벌 표준기업 대외 신인도 긍정

현대자동차는 지난 14일 세계적인 지속가능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에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는 장기적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비재무적 가치의 재무적 영향도를 측정하기 위해 올해 DJSI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DJSI는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측면을 종합평가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투자기관의 평가척도로 활용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다우존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평가 전문업체인 로베코샘이 매년 시가총액 기준 글로

벌 상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업의 재무 정보와 함께 환경영향,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비재무적 측면을 24개 분야 130여개 항목으로 종합 평가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4월에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2018년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 A를 받고 국내 상위 5개사에 주어지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내재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2003년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비전을 공개해왔다.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인사

◆ 강원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지경배△ 선임연구위원 김경남 △ 연구위원 김충재

### 부임

▲ 양경숙씨 별세, 양광석(전 LG투자증권 지점장)씨 부친상, 양사록(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씨 조부상 = 14일 오전 10시 25분께,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 02-2650-

2742.

▲ 신정숙씨 별세, 박강수(전 배재대 총장·전 라이온스 총재)씨 부인상, 박상준(페이스북 미국 본사 부장)·박혜성·박소영·박지영·박성연(경북대 교수)씨 부친상, 이재혁(경동대 교수)·정형국(더맨즈콰이어 지휘자)·김진식(횡성정형외과 원장)·심재순(사업)씨 장인상 = 14일 오후 5시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 02-3410-6920.

▲ 권순우(전 고려제강 전무·전 KPS 사장)

씨 별세, 서혜란씨 남편상, 권자원(YOU M E 특허법인 변리사)·권명원씨 부친상, 정진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신현준(교보증권 과장)씨 장인상 = 14일 오전 9시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공원묘원. ☎ 02-3010-2232.

▲ 원광수 씨 별세, 원홍대(한국수력원자력 건설기술처장)씨 부친상 = 14일 오후 8시,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장지 서울 공원묘원. ☎ 02-440-8800.